

# 눈길끄는 봉축행사 3題

불기 2544년 을 봉축행사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각종 문화·예술제를 비롯해 신형 및 복지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펼쳐진다. 이중 '불교 이해하기 정보사냥 경시대회' '자비 릴레이봉사' '불교인권문화제' 등은 '부처님 마음'으로 이웃과 함께 라는 을 초파일 주제를 그대로 담고 있는 일반의 시선을 끌만한 프로그램이다.

## 인터넷시대 포교아이디어

**불교 정보 경시대회** 목동청소년 수련관(관장 정문)이 4월30일과 5월14일 두 차례 실시하는 '불교 이해하기 정보사냥 경시대회'는 올해 처음 실시하는 프로그램으로 인터넷 시대에 어울리는 봉축행사다.

이번 행사는 인터넷이 갖가지 정보를 통해 불교를 쉽게 알릴 수 있는 새로운 포교의 장이 될 것이라는 기대에서 기획된 것. 그런만큼 인터넷에 존재하는 불교관련 사이트들을 청소년들이 직접 방문해 보게 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대회진행은 중·고등부 각각 18명이 문제가 수록된 디스크 1장을 받아 문제를 확인, 정답과 정답이 있는 사이트 주소를 디스크에 담아 제출하는 방식. 물론 출제문제는 모두 불교관련정보를 탐색하는 것이고, 입상자들에게는 푸짐한 상품도 주어진다. (02)2646-6819

## 불우노인에 부처님 자비를

**자비릴레이 봉사** 불교자원봉사연합회(회장 성덕)가 5월 10일 오전 10시부터 탑골공원에서 벌이는 '자비 릴레이봉사'는 불우노인들에게 부처님의 자비를 전하는 이색행사다. 이곳 탑골공원을 이용하는 노인들 줄잡아 300여명. 평소엔 소일거리를 찾는 것조차 쉽지 않아 지루하지만 이날만은 플라 마음의 주름을 활짝 펴게 된다.

이날 진행되는 봉사활동은 이·미용, 수지침, 영정사진 찍어드리기 세 가지 분야. 모두 어느

정도 전문적인 실력이 있어야 하는 만큼 이어갈만한 자원봉사자들이 나선다. 이들 자원봉사자들은 서울예술대학 사진학과 학생들, 그리고 불교자원봉사연합회가 운영하는 자원봉사시민대학에서 이·미용 단과과정을 거친 수료생들과 수지침 봉사단으로 구성된다. 이밖에 영은사, 신홍사, 방생선원, 사천왕사, 일각사 등 서울지역 사찰 신도들도 행사 참가 노인들의 편의를 돕는다. (02)723-6258

## 인간존엄 되새기는 초파일

**불교 인권문화제** 남북정상회담을 앞둔 가운데서 실천불교전국승가회(의장 청화)가 5월7일 오후 4시 종각 국제청 앞에서 개최하는 '불교인권문화제'는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뜻과 함께 동일한 의미와 인간 존엄의 가치를 되새긴다는 의미 있는 행사다.

'장기수 그 못다한 이야기들'이라는 행사제목이 말해주듯 비전향장기수들의 고통스런 삶을 알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귀향을 촉구하는 것이 이번 행사의 취지. 이미 출소한 비전향장기수들이 참석하며, 법오식에 이어 안치환, 유진박, 권진원, 이정렬 등 인기연예인들의 공연도 펼쳐진다.

공연 티켓 판매 수익금을 비전향장기수들의 후원과 송환을 위해 애쓰고 있는 불교장기수후원회와 비전향장기수 송환 추진위원회 등 인권단체에 전액 지원함으로써 부처님의 인도주의 정신을 실천하고 자비행도 실천하게 된다. (02)725-4277

한명우 기자 (mwihan@buddhapia.com)

# 불교문화상품 개발 '봄'

## 경남도 가야문화유산 관광코스 마련

## 충북도 '법주사 탑돌이 보존회' 구성

## 영광군 백제불교 도래지 기념사업

가야 남방불교 유적, 백제불교 초전지인 영광 법성포, 법주사 탑돌이 등이 불교관광상품으로 본격 개발된다.

경남도는 15일 인도 아유타국에서 건너 온 허황옥의 흔적을 더듬어 볼수 있는 관광루트(진해 용원에서 김해까지)를 개발하고 신어사, 장유암, 칠불암 등을 연결하는 남방불교와 장유화상을 주제로 한 가야문화유산 관광코스를 개발하기로 했다.

5월 하순까지 개발되는 가야 불교문화 상품은 합천 해인사와 양산 통도사 등 기존의 사찰 중심의 불교탐방 상품과 연계, 더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마라나타 스님이 백제에 처음으로 불교를 전한 곳으로 전하는 전남 영광군 법성포 진내리 일대를 성역화하는 백제불교최초도래지성역화사업추진위(공동위원장 다정 백양사주지·종길 화엄사주지·김봉렬 영광군수)는 21일 전

남 영광군 영광을 한국전력문화회관에서 창립법회를 개최했다. 영광군이 2001년까지 91억원을 투입하는 '백제불교 최초 도래지 기념사업'은 2001년까지 마라나타상, 부용루, 배 등의 기념조형물과 관리동, 기념품판매점, 전통차집, 야외공연장, 야생초화원, 테마파크, 민다라광장, 관광대 등 시설물을 갖추게 된다.

충북도는 12일 법주사 탑돌이 보존회를 구성. 2002년까지 탑돌이를 매월 1회 시연하기로 했다. 보은군은 이를 위해 보은문화원에 고전무용 강좌를 개설, 탑돌이와 관련된 무용교육을 실시하는 등 탑돌이 보존·전승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재경·천미희 기자



**일산에 국내 최대 노인복지관** 연꽃마을이 고양시로부터 수탁한 국내 최대 노인복지관 일산노인종합복지관이 20일 개관했다. 일산노인종합복지관은 상담사업, 기능회복사업, 평생사회교육사업, 주간보호사업, 고령자취업알선사업 등을 펼치게 된다. 이날 개관식에는 연꽃마을 이사장 각현스님과 관장 늘인스님, 보각(소쩍새마을 원장) 영담(부천석왕사 주지) 성운(은평노인복지관장) 스님과 정범규·김덕배·곽치영·이근진(이상 일산·고양지구 국회의원 당선자), 협교총(고양시장) 씨 등 사부대중 1천여명이 참석했다.

강원도 영동지역 산불이 15일 완전히 진화되면서 이재민을 위한 성금 정도는 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입장만 밝혔다.

불교계도 이미 진각종 복지재단과 승가원, 자원봉사연합회 등과 신홍사, 일정사 등 해당 지역 사찰 등에서 정성을 보냈다. 그러나 이런 사찰과 단체는 10여 곳에 불과하다. 여기에 조계종을 비롯한 그 많은 불교종단들도 아직까지(20일 현재) 아무런 반응이 없다.

14일 "어떤 방법으로 도울지 고민하고 있다"던 조계종 총무원장은 6일 후인 20일 "본사급 사찰을 중심으로 쌀 모으기를 계획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 총무원 차원에서 성금 정도는 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입장만 밝혔다.

산불로 인한 이재민은 4월초부터 발생했다. 산불이 완전 진화되고 이재민 현황이 파악된 것은 16일이었다. 그렇다면 아무리 늦어도 20일 이전에는 명쾌한 구호 계획이 나와야 했었다. 그리고 강원도에서 일어난 피해지만 다른 지역의 큰 사찰에서도 구호에 나서야 했다.

이웃 개신교와 천주교, 원불교는 일찌감치 도움의 손길을 뻗치고 있다. 개신교는 16일 '삼척·동해시 산불피해대책 기동교협의회'를 구성하고 전국교회에 도움을 요청하고 지원을 호소하고 나섰다. 천주교는 12일부터 교구별로 모은 성금을 이재민에게 전달하기 시작했다. 원불교도 종단 복지법인 단체인 '봉공회'가 전국 지방회와 구호물품과 성금을 전달하고 있다. 원불교는 난만 뜨면 '자비'를 외쳐왔던 불교계로서는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수년전 '삼풍백화점 참사' 때 대대적으로 자비의 손길을 펼쳤던 불교계가 이번에는 왜 이리 소극적인지 안타깝다.

이 과약된 것은 16일이었다. 그렇다면 아무리 늦어도 20일 이전에는 명쾌한 구호 계획이 나와야 했었다. 그리고 강원도에서 일어난 피해지만 다른 지역의 큰 사찰에서도 구호에 나서야 했다.

이웃 개신교와 천주교, 원불교는 일찌감치 도움의 손길을 뻗치고 있다. 개신교는 16일 '삼척·동해시 산불피해대책 기동교협의회'를 구성하고 전국교회에 도움을 요청하고 지원을 호소하고 나섰다. 천주교는 12일부터 교구별로 모은 성금을 이재민에게 전달하기 시작했다. 원불교도 종단 복지법인 단체인 '봉공회'가 전국 지방회와 구호물품과 성금을 전달하고 있다. 원불교는 난만 뜨면 '자비'를 외쳐왔던 불교계로서는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수년전 '삼풍백화점 참사' 때 대대적으로 자비의 손길을 펼쳤던 불교계가 이번에는 왜 이리 소극적인지 안타깝다.

이웃 개신교와 천주교, 원불교는 일찌감치 도움의 손길을 뻗치고 있다. 개신교는 16일 '삼척·동해시 산불피해대책 기동교협의회'를 구성하고 전국교회에 도움을 요청하고 지원을 호소하고 나섰다. 천주교는 12일부터 교구별로 모은 성금을 이재민에게 전달하기 시작했다. 원불교도 종단 복지법인 단체인 '봉공회'가 전국 지방회와 구호물품과 성금을 전달하고 있다. 원불교는 난만 뜨면 '자비'를 외쳐왔던 불교계로서는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수년전 '삼풍백화점 참사' 때 대대적으로 자비의 손길을 펼쳤던 불교계가 이번에는 왜 이리 소극적인지 안타깝다.

이웃 개신교와 천주교, 원불교는 일찌감치 도움의 손길을 뻗치고 있다. 개신교는 16일 '삼척·동해시 산불피해대책 기동교협의회'를 구성하고 전국교회에 도움을 요청하고 지원을 호소하고 나섰다. 천주교는 12일부터 교구별로 모은 성금을 이재민에게 전달하기 시작했다. 원불교도 종단 복지법인 단체인 '봉공회'가 전국 지방회와 구호물품과 성금을 전달하고 있다. 원불교는 난만 뜨면 '자비'를 외쳐왔던 불교계로서는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수년전 '삼풍백화점 참사' 때 대대적으로 자비의 손길을 펼쳤던 불교계가 이번에는 왜 이리 소극적인지 안타깝다.

이웃 개신교와 천주교, 원불교는 일찌감치 도움의 손길을 뻗치고 있다. 개신교는 16일 '삼척·동해시 산불피해대책 기동교협의회'를 구성하고 전국교회에 도움을 요청하고 지원을 호소하고 나섰다. 천주교는 12일부터 교구별로 모은 성금을 이재민에게 전달하기 시작했다. 원불교도 종단 복지법인 단체인 '봉공회'가 전국 지방회와 구호물품과 성금을 전달하고 있다. 원불교는 난만 뜨면 '자비'를 외쳐왔던 불교계로서는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수년전 '삼풍백화점 참사' 때 대대적으로 자비의 손길을 펼쳤던 불교계가 이번에는 왜 이리 소극적인지 안타깝다.

이웃 개신교와 천주교, 원불교는 일찌감치 도움의 손길을 뻗치고 있다. 개신교는 16일 '삼척·동해시 산불피해대책 기동교협의회'를 구성하고 전국교회에 도움을 요청하고 지원을 호소하고 나섰다. 천주교는 12일부터 교구별로 모은 성금을 이재민에게 전달하기 시작했다. 원불교도 종단 복지법인 단체인 '봉공회'가 전국 지방회와 구호물품과 성금을 전달하고 있다. 원불교는 난만 뜨면 '자비'를 외쳐왔던 불교계로서는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수년전 '삼풍백화점 참사' 때 대대적으로 자비의 손길을 펼쳤던 불교계가 이번에는 왜 이리 소극적인지 안타깝다.

이웃 개신교와 천주교, 원불교는 일찌감치 도움의 손길을 뻗치고 있다. 개신교는 16일 '삼척·동해시 산불피해대책 기동교협의회'를 구성하고 전국교회에 도움을 요청하고 지원을 호소하고 나섰다. 천주교는 12일부터 교구별로 모은 성금을 이재민에게 전달하기 시작했다. 원불교도 종단 복지법인 단체인 '봉공회'가 전국 지방회와 구호물품과 성금을 전달하고 있다. 원불교는 난만 뜨면 '자비'를 외쳐왔던 불교계로서는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수년전 '삼풍백화점 참사' 때 대대적으로 자비의 손길을 펼쳤던 불교계가 이번에는 왜 이리 소극적인지 안타깝다.

이웃 개신교와 천주교, 원불교는 일찌감치 도움의 손길을 뻗치고 있다. 개신교는 16일 '삼척·동해시 산불피해대책 기동교협의회'를 구성하고 전국교회에 도움을 요청하고 지원을 호소하고 나섰다. 천주교는 12일부터 교구별로 모은 성금을 이재민에게 전달하기 시작했다. 원불교도 종단 복지법인 단체인 '봉공회'가 전국 지방회와 구호물품과 성금을 전달하고 있다. 원불교는 난만 뜨면 '자비'를 외쳐왔던 불교계로서는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수년전 '삼풍백화점 참사' 때 대대적으로 자비의 손길을 펼쳤던 불교계가 이번에는 왜 이리 소극적인지 안타깝다.

이웃 개신교와 천주교, 원불교는 일찌감치 도움의 손길을 뻗치고 있다. 개신교는 16일 '삼척·동해시 산불피해대책 기동교협의회'를 구성하고 전국교회에 도움을 요청하고 지원을 호소하고 나섰다. 천주교는 12일부터 교구별로 모은 성금을 이재민에게 전달하기 시작했다. 원불교도 종단 복지법인 단체인 '봉공회'가 전국 지방회와 구호물품과 성금을 전달하고 있다. 원불교는 난만 뜨면 '자비'를 외쳐왔던 불교계로서는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수년전 '삼풍백화점 참사' 때 대대적으로 자비의 손길을 펼쳤던 불교계가 이번에는 왜 이리 소극적인지 안타깝다.

이웃 개신교와 천주교, 원불교는 일찌감치 도움의 손길을 뻗치고 있다. 개신교는 16일 '삼척·동해시 산불피해대책 기동교협의회'를 구성하고 전국교회에 도움을 요청하고 지원을 호소하고 나섰다. 천주교는 12일부터 교구별로 모은 성금을 이재민에게 전달하기 시작했다. 원불교도 종단 복지법인 단체인 '봉공회'가 전국 지방회와 구호물품과 성금을 전달하고 있다. 원불교는 난만 뜨면 '자비'를 외쳐왔던 불교계로서는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수년전 '삼풍백화점 참사' 때 대대적으로 자비의 손길을 펼쳤던 불교계가 이번에는 왜 이리 소극적인지 안타깝다.

## 뉴스 & 뉴스

### 5월8일 '통일 대토론회'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위한 1000일 정진 불교연대'와 새시대불교포럼은 5월8일 오후2시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홀에서 '통일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제1부에서는 강만길 고려대 교수가 '통일운동의 반성과 전망'을 주제로 기조강연하며, 통일관련 비디오를 상영한다.

제2부 '화합, 새로운 출발을 위하여' 주제의 토론에는 조성열 국가보훈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이 '한민족 네트워크와 민족통일'을, 권혁범 대전대 교수가 '냉전문화에서 평화문화로'를 주제로 발표한다.(02)725-4282 김재경 기자

### 전자 봉축카드 무료배달

진각종 밀교신문이 초파일을 맞아 봉축 전자카드 무료 배달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봉축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5월 15일까지 실시하는 무료배달 서비스는 밀교신문에서 제작한 봉축 전자카드(3종)중 하나를 선택해 카드를 받을 사람의 전자우편주소로 전화(02-913-0136) 팩스(02-913-0137) 또는 홈페이지(http://www.milgyonews.net) 또는 http://news.jingak.or.kr)로 신청하면 카드를 받을 사람에게 전자우편으로 직접 배달이 된다. 이경숙 기자

### 용공사는 태고종 소유

서울고법, 조계종측 항소 기각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곽동효 부장판사)는 19일 인천영종도 용공사를 놓고 조계종 용공사가 태고종 용공사와 재단법인 한국불교 태고원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 등기 말소 청구소송에서 원심으로 태고종의 소유를 인정, 조계종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계종 소속 승려가 용공사에 제작한 적 없는 등 조계종 용공사는 실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태고종측 주지가 절을 실질적으로 운영해 왔고 지난 70년 관할관청에 태고종 소속으로 등록까지 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경숙 기자

### 부인사서 선덕여왕 숭모제

제14회 선덕여왕 숭모제가 19일 팔공산 부인사(주지 성타)에서 봉행됐다. 이날 숭모제에는 동화사주지 성덕스님, 최동원 제9교구신도회장, 최정숙 선덕여왕 숭모회장 등 사부대중 5백여 명이 참석했다.

부인사는 선덕여왕의 모후인 마야부인의 원당으로 건립된 사찰로 경내에 있는 선덕여왕 숭모전에 매년 선덕여왕의 기일(문묘)에 숭모제가 봉행되고 있다. 이윤호 기자

### 진관스님 항소심 2차공판

국가보안법 등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1년, 자격정지1년을 선고받은 진관스님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이 19일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소7부(재판장 김용균) 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는 윤기원 변호사는 변호인 변론을 통해 "법민족대회를 주도하고 북한측과 팩스를 주고받았다는 검찰 주장은 구체적 증거가 없는 막연한 법적용"이라며 1심 판결이 파다함을 주장했다. 선고 공판은 5월 12일 오전 10시 서울지방법원 423호 법정에서 열린다. 김재경 기자

## 군법당 석림사

### 전기누전 '전소'

제 28 보병사단 82연대 군법당인 석림사(주지법사 양영모)가 16일 전기누전으로 추정되는 화재로 전소됐다.

16일 오후 11시 경 석림사 전장 끝부분에서 화재로 보이는 불꽃을 발견해 10여분 만에 소방차 3대와 연대 병력 100여명이 동원돼 소화작업에 나서 11시 40분경 완전 진화됐다.

소실물은 목조스레터전물 1동(75평), 피아노 1대, 노트북 1대, 컴퓨터 1대, 선공구 5대, 냉장고 1대, TV 1대, 불탄(불화, 불구용품, 법상, 법요집, 집기류), 인동 2개, 중, 앰프, 책장 3개, 도서 500권, 병문수기 1대, 싱크대, 보온통, 상, 거울, 청소기, 그릇, 전자기 등 총 22개 품목, 1천만원 상당이다.

강지연 기자



## 춘천 노인복지관 개관

### 천태종 복지재단 운영

천태종 복지재단이 위탁운영하는 춘천시 노인종합복지관(관장 월도스님)이 27일 오후 2시 개관식을 갖고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한다.

춘천시 동면 만천리에 위치한 노인종합복지관은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574평규모로 불치리호실, 체육단련실, 휴게실, 이·미용실, 경노식당 등 노인 건강과 편의를 위한 각종 첨단 시설을 갖추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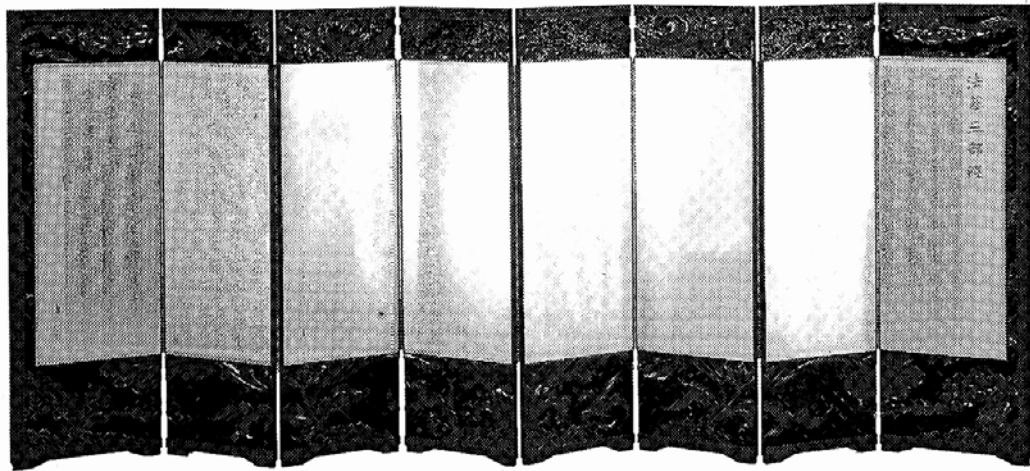
3일 노인대학 개강과 함께 노인들을 위한 활동을 시작한 춘천 노인복지관은 한글과 한문, 영어 등 어학교실과 서예, 노래, 레크리에이션, 영화감상, 사물놀이 등을 가르치고 있으며 건강체조, 탁견, 능가구기, 자원봉사대 활동 등도 꾸려나가고 있다.

이경숙 기자

현세(現世)의 불자들이 대대손손 집안의 가보(家寶)로서 후손들에게 물려줄수 있는 이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값진 성품(聖品)

# 법화삼부경(一名, 법화경) 금니 8폭 조각 병풍

- 법화삼부경 8만4천여 자가 8폭 금속판 위에 한자 한자 양각으로 인쇄 조각되어 99.9% 수급으로 도금된 후 영구적으로 훼손되지 않도록 표면에 특수코팅 처리를 하여 때가 묻거나 변색되지 않습니다.
- 병풍은 한쪽마다 영꽃, 구름, 법륜, 하늘, 바다 등 모든 구성요인이 생생하게 입체적으로 조각되어 있기 때문에 생동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 대대손손 집안의 가보로 전할 수 있도록 오랜 세월이 지나도 변형이 가지 않는 목재와 특수재질을 혼합하여 조성되었습니다.
- 본 병풍 소장자는 부부이름이 금속판에 조각, 수급으로 도금한 후 병풍 뒷면에 부착되므로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선조명으로 길이 남게 됩니다.
- 본 병풍은 실용신안 및 의장등록특허를 출원하였으며 한폭 한폭 조형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됨으로 신청 후 받으시는데 1~2주일 정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 인도방법은 손상의 우려가 있어 한폭 한폭을 원하시는 장소까지 본회에서 직접 모으다 드립니다.



〈규격〉 높이: 152cm 길이: 366cm 무게: 70kg

### 본 병풍을 모신 스님과 불자들에게 일어난 신비스러운 사례

- ① 집안의 공기가 병풍에서 솟아져 나오는 법기(法氣)의 영향으로 맑아지면서 집안에 생기가 가득하고 앞으로 6개월밖에 못산다는 중환자가 건강이 점점 호전되어 낫아지고 있는 기적이 일어났다.
- ② 도산 직전에 있던 회사가 사장이 이 병풍을 모신 후부터 매출이 몇배 신장되고 우연히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일이 생기고 하여 이제는 완전히 회생하였다.
- ③ 자손이 없어 고민하던 사람이 병풍을 모시고 그 앞에서 2개월 정도 기도후 아기를 갖게 되었다.
- ④ 집안에 도적이 들어 온 집안을 뒤졌으나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했다고 한다. 집안에 현금과 보석이 가득한데 그것을 훔치고 간 것은 병풍의 법기(法氣)가 재산을 가려주었다고 본다.
- ⑤ 사법시험에 육년동안 실패했던 고시생이 집안에 병풍을 모신 뒤 합격하는 영광을 얻었다.

- ⑥ 수험생을 둔 학부모 7명이 모두 병풍을 모신 뒤 원하는 대학에 특자로 합격하는 영광을 얻었다.
- ⑦ 기복교를 믿고 있던 사위가 병풍을 모신 뒤 바로 불교로 귀의하면서 매일같이 병풍앞에서 3배씩 절을 하고 부처님께 기도하면서 불경을 공부하고 있다고 한다.
- ⑧ 37세의 노처녀가 병풍을 모신 뒤 2개월 만에 총각 형의를 만나 결혼하였다.

※ 상기 호형사례 외에 병풍을 모신 사람마다 크고작은 집안의 경사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가족들이 모두 병이 없어지고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하고 있으며, 집안이 화목해지고 어떤 일을 하던 보이지 않는 알 수 없는 어떤 힘(力)이 도와주는 느낌을 받고 있다고 하는 신비스러운 작용들을 전해 오고 있습니다.

※ 연락주시면 카탈로그 및 설명서 보내드립니다

『아래 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 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이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에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파멸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풍수원리에 맞지않는 주택이나 상가, 사무실등에 적용하면 재운과 복을 일으키는 운세로 바꾸어 놓고,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에 적용하면 생기있는 땅의 명당자리 산소로 변화하게 하는 방법이 수록된 책자"

**성지관음회**  
전화 : (0335) 334-9490, (0335) 334-9491  
아간 : (0342) 706-3060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